



좋은이웃교회 GOODNEIGHBOR CHURCH

목장나눔지

좋은이웃교회는 감격이 넘치는 주일예배와 사랑이 넘치는 목장예배를 사모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는 사도행전 2장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으로 말미암아, 오순절 성령의 강림으로 시작된 초대교회의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며'와 '집에서 떡을 떼며'라는 말씀을 근거로하여 주일은 '온세대공동체'가 모이고, 주중에는 '작은공동체'의 모임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작은공동체: 목장모임은 '나눔중심예배'입니다. 설교자로부터 선포되는 말씀이 아니라, 각자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적용점을 나누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한 마음으로 기도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코이노니아공동체'입니다.



WELCOME

함께 모인 목장원들이 환영받고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도자(목자)의 재량에 따라 간단한 게임이나 유머를 통해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 수 있고, 또는 식사를 먼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WORSHIP

- 1) 익숙한 찬양을 준비하여 찬양예배를 드립니다(15분).
- 2) 찬양은 예비과정인 것이 아니며,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합니다. 찬양 자체가 예배의 본질입니다.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찬양예배를 드리십시오.
- 3) 목자가 항상 인도하지 말고, 은사를 가진 목장원 또는 서로가 돌아가면서 준비하면 좋습니다.



WORD

- 1) 주일설교/개인묵상 나눔 > 예수님 자랑하기(감사) > 예수님 기대하기(기도제목)을 나눕니다.
- 2) 말씀나눔은 설교 또는 개인묵상에 대한 적용을 나누는 것입니다.
- 3) 예수님 자랑하기(감사)는 한 주 간 동안 삶에 감사했던 일들을 나누는 것입니다.
- 4) 예수님 기대하기(기도제목)은, 어려움이나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깊이 있게 나누는 것입니다.



WORK

- 1) 함께 나누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서로가 중보기도하는 시간입니다.
- 2) 시간이 여유롭다면 한 사람씩 소그룹 가운데에 넣어, 몸에 살짝 손을 얹어 중보기도 합니다.
- 3) 기도는 준비가 아니라, '사역'입니다. 중보기도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사랑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주일설교

제목: 신자(성도)의 자유

본문: 로마서 8장 1-6절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신자(성도)들에게 쓴 것입니다(로마서 1:7절).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이고, 바울의 이전 이름은 '사울'이며 '희망'이라는 의미입니다(사도행전 8:1, 9:1절).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해당되는 것으로, 구원의 차별이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의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로마서 1:16-17절). 본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누리는 자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자(성도)의 자유는 '정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1절). 본문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정죄'란 죄에 대한 삿(값)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확정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모든 '정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모두 갚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정죄로부터의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2. 신자(성도)의 자유는 '죽음'에서의 자유입니다(2절). 본문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죄와 사망의 법은 율법을 말합니다. 율법은 “죄의 삿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로마서 6:23절)라고 합니다. 또한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히브리서 9:27절)라는 말씀처럼 죽음과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해방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3. 신자(성도)의 자유는 '율법의 요구'로부터의 자유입니다(3-4절). 본문 3-4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에 죽음으로 모든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입니다. 그렇다고 죄를 지으며 살아가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사람은 죄를 범하면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자(성도)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죽음에서 해방되었으며, 율법의 요구로부터 자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좋은이웃교회' 모든 신자(성도)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나눔질문

1.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자(성도)는 어떠한 자유가 있습니까?
2.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자(성도)로서 자유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 죄 사함의 자유 ”

철학자 부르너는 '정의와 자유'라는 책에서 자유에 대하여 말하기를
 "인간이 원하는 모든 자유의 성취는 체제가 바뀐다 하더라도
 사람의 마음속에 진정한 의미의 자유를 구속하는 죄가 있는 한
 구속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질서를
 어기고 하나님 앞에서의 자유를 구속하는 죄가 있는 한
 진정한 자유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그 어디에도 참 자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가정의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이 집안에서 장난을 치다가 그만 화분을 넘어뜨려 금이 가고 말았습니다. 그 화분은 아버지가 가장 아끼는 화분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알게 되는 날에는 크게 야단을 맞을 것이 뻔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그 집에서 일하던 가정부가 지켜보았습니다. 그 가정부는 이 아이에게 나를 도와 청소를 같이하면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말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할 수 없이 이 아이는 가정부의 말을 거역하지 못하고 매일 매일 일을 도와야 했습니다. 그 가정의 귀한 아들이 가정부의 일꾼이 되고 말았습니다. 원인은 아버지의 화분을 깨뜨린 죄가 있고, 그 죄를 가정부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아이가 생각하기를 "언젠가는 아버지께서 알게 되실 터인데 그 때 야단을 맞는 것이나 지금 야단을 맞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아닌가? 언제까지 내가 가정부의 종처럼 살아갈 것인가? 차라리 아버지께 말씀드려 야단을 맞는 것이 더 낫겠다"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말씀을 드리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 때 아버지는 예상 밖으로 야단을 치지 않으시고 머리를 쓰다듬으시며, 자기의 잘못을 정직하게 말하는 아들을 칭찬해주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이 어린아이는 화분을 깨뜨린 잘못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들이지만 잘못을 범했을 때 아들의 자유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잘못을 아뢰며 용서를 구했을 때 아들의 자유는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이처럼 죄가 있는 곳에는 참된 자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사죄함의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THINK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가장 깊이 아십니다. 아무리 가리려 해도 우리의 동기까지 살피시는 하나님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으로 서게 될 때, 우리 안에 온전한 사랑이 주는 담대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언제, 어디에서 잃어버렸습니까? 그 자리로 돌아가 회개함으로 '정직'으로 다시 일어서기를 축복합니다.

목장보고서를 주일예배 후에 목장사역센터로 제출해 주시기바랍니다.

수요예배 담당안내					
담당	8월 3일	8월 10일	8월 17일	8월 24일	8월 31일
마을특송	샘솟는	섬김	살롬	온유	청장년
대표기도	장정숙 권사	안병자 권사	최오숙 권사	한영문 권사	이은자 권사

마을별 교회봉사 담당안내					
담당	8월 6일	8월 13일	8월 20일	8월 27일	9월 3일
본당청소	행복한 (중식없음)	샘솟는	섬김	살롬+청장년	온유
중식봉사					

주요광고

-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한 삶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아 4층 VIP실로 이동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재유행하고 있습니다. 방역과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8월 첫 주(8.7) 주일까지 중식이 제공되지 않습니다(방역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다음세대교육위원회/ 여름행사를 위해서 많은 관심과 기도후원을 부탁드립니다.
 - 유초등부(꿈쟁이) 여름성경학교 / 주제: What is Love / 일시: 8.6(토)~8.7(주일) / 장소: 좋은이웃교회 7층
 - 학생부(로고스) 하계 수련회 / 주제: 예수님 습격사건 / 일시: 8.6(토)~8.7(주일) / 장소: 좋은이웃교회 6층
 - 청년부(청년옥합)하계 수련회 / 주제: 회복, 다시 세움 / 일시: 8.14(주일)~8.15(월) / 장소: 용인
- 월삭새벽기도회 / 일시: 8월 1일(월) 새벽 5시 / 장소: 3층 본당/ 기도로 8월을 승리하십시오!
- 총동원가족주일(성찬식) / 일시: 8월 7일(주일) 오전 9, 11시 / 장소: 3층 본당.
- 마을장.목자 정기교육 / 8월 7일(주일) 2부 예배 후 / 장소: 2층 식당.

■ 파워전도대 토요전도 (2시 30분/ 2층 집합).

사랑 나눔 전도가 '매주 토요일'에 있습니다. (금주: 안수집사회 / 다음 주: 집사)

■ 교우소식 ■

- 치유 중보 기도: 김수차 권사/유수립 권사/김해생 권사/이문형 장로/김진석 집사/한정희 권사/
이향숙 사모/유춘자 권사/조병양 집사/조인상 집사/문동준 청년/최진수 장로/이은경 집사/장순희 집사

만복의 근원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